

# 기회의 땅, 캄보디아

- 국제학부 캄보디아 문화체험 보고서

경영학과11 박의주

## 문화체험의 목적

기회를 위한 사전작업

'청년실업 40만, 물가와 경제성장률 정체, 디플레이션 위기' 작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좁은 우리나라에서 벗어나 세계로 그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동남아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남아의 경제상황과 문화에 대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저 후진국이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경제상황과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지금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이해를 넘어서 그들과 소통하여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이번 문화체험의 목적이다.

왜 캄보디아인가?

캄보디아는 현재 5~7%의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규모도 한류열풍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캄보디아의 노동력도 주변 국가대비 값싸지만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왜 캄보디아 인가?

1. 시장이 개방적이다. 2. 미개발된 토지와 관광지가 많다. 3. 젊은 인구가 많다.

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KOTRA 프놈펜 무역관' 부분에서 다루겠다.

## 문화체험

### Puthisastra 대학교

12/21일, 우리는 첫 일정으로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는 Puthisastra 대학교에 방문(별첨- 사진1)하게 되었다. Puthisastra 대학교는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등 의학, 건강과 관련된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론적인 학문보다 실용적인 것이 현재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 대학교에도 교복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경제상황과 쟁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의와 관련해서 현지 경제학과 학생들과 미팅을 했다. 현지 학생들은 내 예상과 달리 영어실력이 매우 우수했고 영어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수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나도 아직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는 젊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부유한 지식인들의 자제들이 프랑스 유학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70년대 민주캄푸치아 시절 킬링필드사건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킬링필드

캄보디아는 1863년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90년간의 지배 끝에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sup>1)</sup> 독립이후 캄보디아의 정권은 매우 불안정하였는데 원리주의 공산당이었던 크메르 루즈의 수장인 폴 포트의 통치시절( 민주캄푸치아: 1976-1979 ) 그것이 극에 달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흔적인 킬링필드와 고문박물관을 방문(별첨- 사진2,3)하였다. 사실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방문한 것이었는데도 그곳은 엄숙함이 느껴졌다. 당시 폴 포트는 직접적인 반대세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있던 모든 지식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다. 우리는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관람했는데 이 가이드에 따르면 당시 교사의 80%가 사망하였고 의사, 언론인 등의 지식인, 안경을 쓴 사람, 배가 나온 사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손이 고운사람 등 닳치는 대로 학살했다고 한다. 여기에 기근과 질병이 겹쳐 700만 명중 약 200만 명, 인구의 1/3이 사망하였다. 내전은 90년대 이르러 종결되었지만 킬링필드사건으로 인한 많은 지식인들의 사망으로 현재 캄보디아의 교육수준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메콩강 유람선

우리는 첫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메콩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프놈펜의 야경을 관람하였다. 메콩강 야경은 아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수수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다.(별첨-

---

1)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여 세운 독립기념관은 프놈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우리도 기회가 되어 둘째 날 훈센파크, 왕궁(별첨- 사진5)과 함께 방문할 수 있었다.

사진4) 이러한 느낌과는 달리 사실 2)메콩강은 총길이 4000km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강이다. 6개국을 통과하고 있어 동남아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유량이 많고 퇴적물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아열대성 기후는 무려 4부작의 논농사와 풍부한 과일재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도 기회가 되어 교수님들께서 사주신 망고와 람부탄을 먹을 수 있었는데 겨울이라 제철이 아닌데도 맛이 좋았다.

## KOTRA 프놈펜 무역관

12/22일, 둘째 날 프놈펜에 있는 KOTRA무역관에 방문하였다. 그 곳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캄보디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 캄보디아는 90년대 말 경제성장률 1% 대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이후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원조로 10% 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다. 세계 경제위기로 약간 주춤하기도 했지만 섬유와 관광을 필두로 최근 그 기세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이다. 또 한국과의 관계도 점점 그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교역규모도 2008년 한-ASEAN FTA 이후 2008년 약 3억 달러에서 2012년 약 7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엄청나게 증가했고 최근 한류열풍으로 방송, 영화, 음악을 통해 트렌드가 형성되어 그 트렌드가 음식과 패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노동력도 4) 주변 국가대비 값싸지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동남아에서 경쟁력을 가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방적인 시장이다. 주변국가인 베트남은 환율인상을 막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5) 여러 규제를 가지고 있고 태국 또한 자국의 성장산업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용 냉장고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이 전혀 없을 만큼 규제가 없다. 또 캄보디아는 자국화폐인 리엘보다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로 미개발된 토지와 관광지가 많다. 캄보디아의 개발된 토지는 거의 농지로 이루어져있는데 아직 그 면적이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별첨- 그림1) 그만큼 아직 사용가능한 토지가 상당히 많다. 관광지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광지 주변 시설이 미흡하다. 앙코르와트 등의 세계적인 관광지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좀 더 발달한다면 좀 더 많은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젊은 청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캄보디아는 30대 이하의 젊은 인구가 절반 이상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5%정도로 주변국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청년인구비율이

---

2) 두산백과, '메콩 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763&cid=40942&categoryId=40026>, 참조

3) KOTRA, 캄보디아 국가정보, 프놈펜무역관, 경제동향 및 전망.

[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3&TOP\\_MENU\\_CD=36848&LEFT\\_MENU\\_CD=36864&MENU\\_CD=36864#nolink](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3&TOP_MENU_CD=36848&LEFT_MENU_CD=36864&MENU_CD=36864#nolink), 참조.

4) 201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태국 300달러, 캄보디아 80달러정도이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12년도 66달러에서 80달러로 20%나 상승했다. / KOTRA, 앞 사이트, 참조.

5) 베트남은 최근 화장품, 자동차 등의 사치품목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수입관세 인상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 KOTRA, 베트남 국가정보, 하노이무역관, 수입규제제도, [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2&TOP\\_MENU\\_CD=33364&LEFT\\_MENU\\_CD=35373&MENU\\_CD=35373#nolink](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2&TOP_MENU_CD=33364&LEFT_MENU_CD=35373&MENU_CD=35373#nolink), 참조.

높은 편이다. (별첨- 그림2) 이러한 많은 젊은 인력들은 앞으로의 국가 성장에 청색신호가 될 수 있다.

씨엠립- 앙코르와트, 타프롬, 앙코르툼

12/23일, 마지막 날 일정으로 프놈펜에서 씨엠립으로 이동해 앙코르와트 사원과 타프롬, 앙코르툼 사원 등 주변 사원을 관람하였다.(별첨- 사진6) 사원관람은 일명 6'톡톡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톡톡이는 값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좋아 버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갈 수 있다. 씨엠립의 사원들은 아열대성 기후와 메콩 강을 기반으로 발전한 9-13세기 크메르제국시대의 흔적들이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원이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왕의 권력을 사원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사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만들어졌던 집들은 없어지고 돌로 만들어진 사원만 남아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람한 사원은 7그 중 가장 큰 사원인 앙코르와트이다. 앙코르와트는 가장 융성했던 12세기 수르야바르만 2세때 건설되었다. 실제로 앙코르와트를 관람해보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하지만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기둥과 조각들, 벽면의 무늬, 그림들이 매우 섬세하다. 현재도 수많은 돌들을 옮기고 높게 쌓은 그 시기의 엄청난 기술력과 기둥과 조각들의 섬세한 예술성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타프롬과 앙코르툼사원을 관람했다. 특이한 점은 앙코르와트사원이 힌두교 사원인 반면에 앙코르툼과 타프롬사원은 불교사원이라는 것이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앙코르툼과 타프롬 사원을 건설한 자야바르만 7세는 왕족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했다. 이에 자야바르만7세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시 힌두교의 철저한 카스트 신분제도를 버리고 만인이 평등한 불교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의 영향으로 캄보디아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씨엠립을 마지막으로 문화체험 일정을 마쳤다.

## 느낀점

나는 사실 캄보디아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그저 동남아라는 사실만 알고 문화체험에 참가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다.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빈부격차이다. 캄보디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차들과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폐차직전의 차들을 가져와서 쓰는 것들이었다. 심지어 한국 글자나 로고 스티커도 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아이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고 관광지나 도심에서 구걸하거나 물건을 파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가

6)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이륜수레가 연결된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운전자 등을 톡톡 쳐서 톡톡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7) 위키백과, '앙코르와트',

[https://ko.wikipedia.org/wiki/%EC%95%99%EC%BD%94%EB%A5%B4\\_%EC%99%80%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C%95%99%EC%BD%94%EB%A5%B4_%EC%99%80%ED%8A%B8).

참조.

이드의 말로는 국력이 약해 앙코르와트 수입의 50%를 베트남에게 주고 있고 발전소를 건설할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 전기도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원가의 5배를 주고 구입해 쓴다고 한다. 반면에 프놈펜을 지나다니다보면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부자들을 겨냥한 것인지 다 쓰러져가는 상가들 주위에 아주 근사하게 지은 고급 자동차 판매점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내가 생활하는 이곳, 한국이 감사해야 할 것들 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동남아에 만연한 부패에 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다. 한국에서도 동남아의 뇌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 아는 분 중에 미얀마에 봉사를 하시려고 비자를 신청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뒷돈을 쥐여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발급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내용이였다. 캄보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곳의 KOTRA 무역관에서, 그리고 가이드의 말은 달랐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는 공적인 체계가 잘 되어있지 않아 공무원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업무를 처리하는데 개인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였다. 따라서 이 개인적인 비용을 메꾸고 보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뇌물 아닌 뇌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였다. 물론 이보다 윗선에서의 부패는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캄보디아에서 배울 점도 있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측면인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잘 살고 있는 친일파의 후손들, 가난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이슈화된 역사교육의 문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문제도 아직 논란이 많다. 반면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와 고문박물관 등을 그대로 보존해 후손들에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시의 전범들의 처리도 철저히 하여 잔재가 남지 않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는 정말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Puthisastra 대학의 한 친구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았다. 그 친구는 경제학과 학생이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왜 경제학과를 선택했냐고 묻자 그 친구는 '물론 실용적인 학문이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경제학과를 택한 것은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생각해보았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캄보디아에 이러한 학생들이 많다면 다른 이유를 제쳐두더라도 캄보디아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캄보디아 문화체험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동남아에 처음 가본 것이었고 별 기대 없이 간 것이었지만 3박 5일이 정말 짧게 느껴져 홀로 남아 자유여행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많은 것을 느꼈고 보고서를 쓰면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기회를 준 국제학부에게 감사하고 함께 즐거운 여행을 동행한 조원들에게 감사하다.

<별도 첨부- 그림, 사진>

그림 1 - 캄보디아 국토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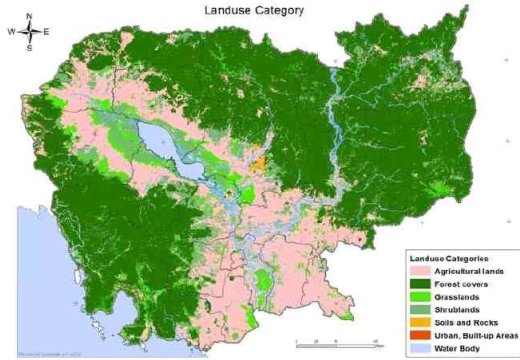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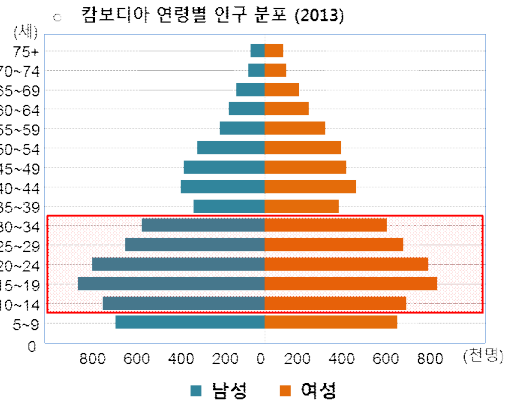


그림 2 - 캄보디아 인구 분포도



출처: 정기환 (2013).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151), 167p.

출처: 김혁, 2014, [캄보디아 부동산] 캄보디아 부동산 전망,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http://www.nbcambodia.com/archives/13705>

사진 1 - Puthisastra 대학



사진 2 - 킬링필드 위령탑





사진 3 - 고문박물관



사진 4 - 메콩 강 야경



사진 5 - 캄보디아 왕궁



사진 6 - 앙코르와트



## 참고문헌

KOTRA, 베트남 국가정보, 하노이무역관, 수입규제제도,  
[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2&TOP\\_MENU\\_CD=33364&LEFT\\_MENU\\_CD=35373&MENU\\_CD=35373#nolink](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2&TOP_MENU_CD=33364&LEFT_MENU_CD=35373&MENU_CD=35373#nolink)

KOTRA, 캄보디아 국가정보, 프놈펜무역관,  
[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3&TOP\\_MENU\\_CD=36848&LEFT\\_MENU\\_CD=36864&MENU\\_CD=36864#nolink](http://www.kotra.or.kr/kbc/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33&TOP_MENU_CD=36848&LEFT_MENU_CD=36864&MENU_CD=36864#nolink)

김혁, 2014, [캄보디아 부동산] 캄보디아 부동산 전망,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http://www.nbcambodia.com/archives/13705>

두산백과, '메콩 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763&cid=40942&categoryId=40026>

위키백과, '양코르와트',  
[https://ko.wikipedia.org/wiki/%EC%95%99%EC%BD%94%EB%A5%B4\\_%EC%99%80%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C%95%99%EC%BD%94%EB%A5%B4_%EC%99%80%ED%8A%B8)

정기환 (2013).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151), 167p.